



통권 제 199호

강남, 라 00943

2564
2020

05

계
음
이
야
기
부
처
남
당
시
의
절
병
예
방



삼
사
라
실
선
성
취



차
향
기
나
라
마
다
마
지
부
마
이
부
다
야
기
다
른

 불교총지종

우드 다르마

With Dhar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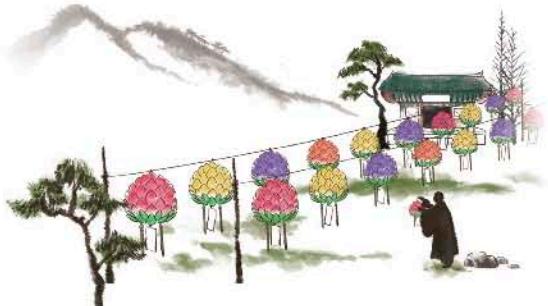
영원한 진리와 함께

종조법선집

제3장 잠언편 p.203

불교의 목적

불교는 내세주의적인 천상계에 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방편이며 현세계에서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을 체현하는 것이 목격이다.
 즉, 심중^{心中}의 악마와의 투쟁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인생의 진리를 깨쳐서 절대 안은^{安寧}을 이상세계^{理想世界}를 체현하는 것이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불교이야기_04

선정의 종류와
단계 2
_ 화령 정사

마음의 등불_32

축적의 시간
_ 이덕무

지혜의 뜨락_36

감정은 전이된다
_ 방귀희

04 불교이야기

10 계율이야기

16 살다보면

22 향유

26 산책

28 아름다운 세상

32 마음의 등불

36 지혜의 뜨락

40 십선성취

44 쌔앗 한 알

48 디딤돌

52 식물 이야기

56 동행

60 차향기

66 걸망에 담긴 이야기

68 독자기고

70 특별기고

72 요리TALKI 정보TALKI

76 되짚어 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선정의 종류와 단계 2 _ 화령 정사

부처님 당시의 질병 예방 _ 법경 정사

좋은 주인의 기본 덕목 _ 이옥경

은혜를 아는 사람 _ 서령 정사

저녁 _ 김대곤

자비선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4 _ 묘원학 전수

축적의 시간 _ 이덕무

감정은 전이된다 _ 방귀희

삼사라 _ 남해 정사

운명을 뛰어넘는 부처님 말씀 上 _ 법상 스님

내 마음의 휴양지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_ 자성 전수

오리무중을 즐기다 억기초-Baby's breath _ 이태용

'반아심경'에 그 반야? _ 고진희

나라마다 다른 차문화 3부 (마지막이야기) _ 김정애

의심스런 궤짝 _ 법일 정사

'정유정 북 콘서트'에 가다 _ 여순애

희망 _ 김정희

봄철 제철요리 _ 김조은

무드라 mudra _ 김재동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인정

정지(STOP)

인생은 이루지 못할 꿈의 끝없는 추구입니다.

언젠가는 어디서 행복할 것이라는 헛된 약속을 위해서 삽니다.

그날은 오지 않고 그 곳은 없어요.

행복의 끝없는 추구가 커다란 속임수입니다.

행복을 찾지 말고 행복으로 살아요.

우리자체가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이에요.

행복은 찾을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예요.

찾는 것을 멈추세요. 멈춤을 찾으세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서 행복합니다.

꿈꾸는 것을 그만하고 사는 것을 하세요.

삶은 연습입니다.

깨어있음을 연습하세요.

만족과 감사를 연습하세요.

사랑을 연습하세요.

당신이 사랑입니다.

당신이 깨달음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Stop. Be here now.

Life is the endless pursuit of the dream just out of reach.

We live for the fairytale of being happy, some day, some place.

That day will never come, and there is no such place.

The endless pursuit of happiness is the great deception.

Don't pursue happiness, be happiness.

We ourselves are the happiness we seek.

Happiness is not something to be found.

It is something to get used to. Stop searching.

Search for the stop. Here lies Happiness.

We don't become happy by getting something.

We become happy by giving up everything.

Stop dreaming. Start living. Life is practice. Practice awareness.

Practice contentment and gratitude. Practice love.

You are love. You are enlightenment.

What more do you want? Stop. Be here now

- 용수 스님(세천코리아 명상센터) -



선정의 종류와 단계 2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화장



초선에서는 감관에 대한 욕구는 없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어 기쁨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마음의 집중을 이룰 수는 있지만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단계는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초선에 익숙해지게 되면 제이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이선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과 사가 멈추고 내심이 깨끗하게 되며, 마음이 통일되고 심과 사가 없어져서, 정으로부터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제이선을 구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초선에 남아 있던 심과 사의 사유작용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사유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관의 작용도 없어집니다. 심과 사라는 표면적인 생각이 완전히 멈추게 되어 마음은 깨끗하게 되며 집중이 됩니다.

고요하고 맑은 선정으로부터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선에서는 회, 낙과 심일경성의 삼지^{三智}가 있다고 합니다. 초선과 제이선의 차이점은 이처럼 심과 사의 유무에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선정을 유심유사정^{有審有伺定}, 무심유사정^{無審有伺定}, 무심무사정^{無審無伺定}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유심유사정은 선정 가운데에서 심과 사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색계 초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선정이기는 하지만 육계정^{色界定}도 심과 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심유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계정이란 감관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 육계의 중생들이 하는 선정으로서, 우리 범부 중생들이 일반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할 때는 기껏 해야 이 정도의 차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계의 선정도 숙달이 되면 더 이상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심무사정은 선정 가운데에 심과 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이선으로부터 제삼선, 제사선의 색계정^{色界定}이 여기에 해당되며, 무색계정^{無色界定}도 모두 무심무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심유사정이라는 것은 심은 없지만 사는 작용하는 선정을 말합니다. 현저한 사유작용은 없지만 미세한 사유작용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선정 가운데에는 이론적으로는 무심유사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단계의 선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인데, 무심유사정은 유심유사정인 초선정보다는 뛰어나고 무심무사정인 제이선 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초선과 제이선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정^{中間定}이라고도 합니다. 제이선에 숙달되면 제삼선^{第三禪}으로 나아갑니다. 경전에서는 제삼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버리고, 사^舍에 의하여 머물고, 염^念이 있으며, 정지^{正知}가 있고 몸의 즐거움을 반으며, 사와 염의 즐거움에 머문다고 모든 성현께서 이르신 제삼선을 구족한다.

제삼선에서는 제이선에서 얻었던 선정에서 오는 기쁨을 버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불고불락의 사에 머물러 정념^{貯念}과 정지^{正知}를 지니게 됩니다.

정념과 정지는 바른 생각과 바른 인식을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물론 심과 사라는 표면적인 의식작용은 사라지게 되며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의 이성이 밝게 빛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는 마음의 고요함에서 오는 안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상태를 깨달음을 연 성현들은 '사^舍와 염^念에 의하여 안락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낙과 심일경성의 이지^{二施}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삼선에 숙달되면 제사선^{第四禪}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고를 끊고 이미 기쁨과 괴로움을 멀했기 때문에, 사에 의하여 염이 청정하게 된 제사선을 구족한다.

제사선에서는 제삼선에서 얻었던 신체적 안락함인 낙을 버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와 낙, 기쁨과 괴로움에 대한 감정이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고불락의 사에 의하여 제삼선에서 얻었던 정념과 정지가 한층 더 명료하게 되는 경지입니다.

제사선에서는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와 낙, 희와 우^{*}를 떠나 어떠한 방해도 없이 마음이 명료하게 되어 지혜롭게 사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경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과 몸이 즐거움과 괴로움의 어떠한 것에도 기울지 않고 고요하게 머물러 정신이 거울과 같은 상태로 되기 때문에 지와 판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즉 마음이 고요에 머무는 사마타와 그 고요함으로 여실하게 사물을 관찰하는 위빠싸나가 균형을 이루어 이상적인 선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지혜는 바로 이 제사선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얻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도, 마지막으로 입멸하실 때에도 모두 이 제사선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명육통의 신통력을 얻게 되신 것도 바로 이 제사선의 경지에서 얻었다고 하기 때문에 제사선은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선정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선에서 더욱 깊은 단계의 선정에 들어가면 무색계정의 네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에 치우친 선정으로서 마음의 작용이 거의 멈추어버린 상태이므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질병 예방

법경 정사
정각사 주교
철학박사
동국대 강사

청정한 계율 60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구촌이 공동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문명의 발달이 인간생활을 편하게 하기도 하지 만 어려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무기력해지고 만다.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라 하지만 작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인간에게 올리는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역병^{※※}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인과^{因果}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인간이 자연을 무시하고 파괴한 업보^{業報}다. 이 문제는 한 두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류 전체의 공동의 문제다. 공업^{※※}으로 지은 업보^{業報}인 것이다. 공동 책임으로서 전 세계가 함께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다. 인간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과 청결, 자연보호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위생과 청결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염병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人災}인 것이다. 전염병은 역설적으로 인간생활에서 위생과 청결이 중요함을 일깨운다. 질병을 예방하고 전염병을 차단하는 것은 위생과 청결에 있음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율장』속에서 확인이 된다.

율장에는 청결과 위생에 관한 내용들이 의식 주의 승가생활 전반에 걸쳐 언급되어 있다. 비구 비구니의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승가의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의복^{衣服}과 침구^{寢具} 관리, 치병^{治病}과 약식^{藥食}, 음식 관리, 주거지에서의 청결과 위생, 가재도구 등의 정리정돈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내용은 개인과 승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염병 예방에 대한 언급은 오늘날의 건강 및 질병 예방 수칙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 전염병은 승가 구성원의 안녕과 안락을 위태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석존께서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자.



승가의 생활규범의 전범^{典範}이라 할 수 있는 율장에서는 승가 생활의 전반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승가의 청결과 위생에 대한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가 수행자 자신의 몸에 대한 청결과 위생이오, 두 번째가 의복^{衣服}과 침구^{寢具}의 관리, 세 번째 치병^{治病}과 약식**, 네 번째가 음식 관리와 식사**, 다섯 번째가 주거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의 위생과 청결에 대해 석존은 비구 비구니는 항상 봄을 단정히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항상 손발을 먼저 깨끗이 씻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사분율』에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병을 잡지 말라', '먼저 깨끗이 손을 씻으라', '손 씻는 것과 다리 씻는 것을 구분하라', '다리는 다리 씻는 곳에서 씻어라'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석존은 항상 손을 먼저 씻을 것을 강조한다. 또 손을 씻지 않고 물병을 잡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손을 먼저 씻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질병 예방 수칙과 일치한다.

청결의 최우선은 손을 깨끗이 씻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은 식사와도 관련되어 있다. 식사 전에는 먼저 손을 씻고 먹어야 하고, 밥을 받을 때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고 나서 밥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음식을 두고서 먼저 손을 씻는 것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몸의 청결은 두발이나 손톱을 잘 관리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이다. '머리는 깎아라. 스스로 깎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깎아라', '콧 속에 있는 털은 뽑아야 한다', '수염이나 머리카락도 길어지면 모두 깎아라', '귓속에 때가 끼면 귀이개를 만들어서 소제하라', '혓바닥에 때가 끼면 혀 닦는 칼을 만들어 긁어 내야 한다', '몸에 땀냄새가 날 때는 땀 닦는 칼을 만들어 닦아내야 한다', '입에 냄새가 날 때는 버드나무 가지를 쟁으라', '몸에 더러운 냄새가 날 때는 진흙으로 쟁거나 향내 나는 진흙을 불이도록 하라', '몸에 냄새가 심하게 날 때는 자주 자주 목욕해야 한다' 등등이 그러한 내용이다.

의복과 침구 관리에서도 청결과 위생이 강조된다. 석존은 '5일이 지나기 전에 옷은 뺏어야 한다', '입는 옷과 입지 않는 옷을 구분하라', '옷에 물을 들이고 나서는 반드시 도구를 잘 치우고, 물들인 자리를 소제하고 쓸라', '침상, 요, 베개, 거적, 이불 등의 침구를 끌어내어 나무 위나 널판지 위에 펼쳐서 늘어 놓아야 한다', '거적은 걷어서 털고 별에 쪼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광소독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생과 청결은 음식 관리와 식사에도 적용된다. 음식 관리는 건강과 직결되므로 청결과 위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음식은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계율 가운데 하나였다. '밥을 묵혀서 먹지 말라',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반드시 씻어서 먹으라',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으라', '더러운 손으로



밥그릇을 잡지 말라’, ‘항상 바루를 깨끗하게 씻어놓아라’, ‘다른 사람에게 물을 떠주면서 말을 하여 입안의 침이 튀지 않도록 하라’, ‘말할 때는 고개를 들려서 해야 하고, 식사 중에 크게 기침하여 침이 튀어 옆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림한 음식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침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침방울[비말]이 전염병의 매개체임은 이번 코로나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석존은 비구 비구니들이 물을 마실 때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마셔야 하고, 물을 마신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드시 깨끗한 물을 떠서 마셔야 하고, 물병을 잡을 때도 손을 씻어야 하며, 물을 뜰 때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떠서 마셔야 한다고 가르친다. 만약 벌레 섞인 물을 쓰게 되면 물을 걸러내는 주머니를 만들어 물을 떠야 하며, 주머니가 없으면 가사 자락으로 걸러서 물을 마셔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의 정수**를 의미하고 있다.

주거지의 관리에 있어서도 청결과 위생은 최우선이다. ‘방을 깨끗하게 소제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는 마땅히 먼저 버릴만한 곳을 살펴서 갖다 버려야 한다’, ‘티끌이 있거든 쓸어다 버려야 하고, 소반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고 마땅히 깨끗한 물과 물병, 세수병, 물 마시는 그릇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바루 주머니, 신발 주머니, 바늘, 통, 기름그릇 등을 한 곳에 나란히 놓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마땅히 각각 다른 곳에 두어라’, ‘만약 집 안에 냄새나는 것이 걱정되면 구멍을 뚫어 공기가 빠져 나가게 하라’, ‘그래도 냄새가 나면 진흙향을 발라라. 그래도 냄새가 나면 방의 네 귀퉁이에 향을 걸어 두라’고 하셨다.

집안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풍**과 방향**을 지적한 것이다. 환풍은 작금의 실내환기를 의미하며, 향물을 뿐리거나 향을 다는 것은 오늘날 방향제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석존의 청결과 위생에 대한 지적은 오로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청결과 위생은 수행자의 위의와 직결된다. 몸의 단정과 청결은 넓은 의미에서 지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계 속에서 수행자의 위의가 갖추어지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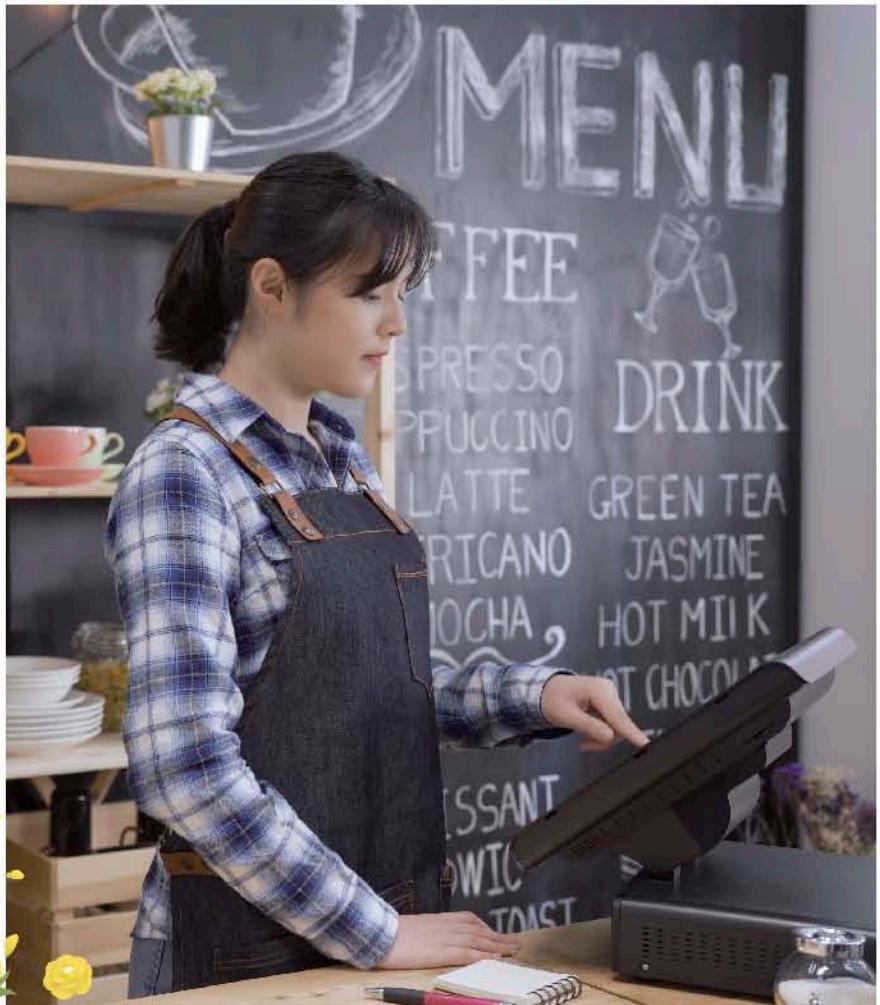
청결과 위생은 승가의 올바른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생활 규칙이자 계율이라 할 수 있다. 석존께서 현 시대에 계셨다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를 보시고 더욱 많은 꾸짖음을 주셨으리라 생각된다. ■

좋은 주인의 기본 덕목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친척이라기에는 멀고, 남이라기에는 가까운 동생이 화장품 가게를 열었다. 평소 살림 솜씨 깔끔하고 아무지기로 소문이 자자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을 뚝 떼어 투자한 것이라 그런지 가게에 대한 애착이 유별날 정도였다. 개성 넘치는 문구류나 캐릭터 인형, 액세서리 같은 것을 팔던 곳이라 달리 손 블 곳도 없었지만 가게를 인수한 날부터 쓸고 닦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은 기본, 진열장을 이리저리 옮기고 화장품을 이렇게 놨다가 저렇게 놨다가, 시쳇말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처음 한동안은 장사가 제법 잘 되는 듯했다. 지나다가 가끔 들어가 보면 끊임없이 들고나는 손님 때문에 이야기도 몇 마디 나누지 못할 정도였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인생 퇴물이 된 것 같아며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던 제부도 화장품이 팔리는 만큼 그것을 차질 없이 재주문하고 채워 넣느라 신바람을 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생 내외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손님이 뜯해지면서 매출이 줄어드는 데다가 도무지 회생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나날이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그 원인은 길 건너에 새롭게 문을 연 화장품 가게 때문이었다. 후발 주자답게 훨씬 더 세련된 인테리어에, 통 큰 개업 할인 행사에, 포인트 를 없어주는 회원제까지 운용하다 보니 동생 부부처럼 뒤떨어지는 영업 수완으로는 백발백중,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분명했다.

탄식과 함께 동생의 하소연이 길어졌다. 나를 불잡고 길 건너 가게 의 화장품에 대해 이런저런 흠을 접는 일도 점점 더 많아졌다. 원재료 가 좋지 않다느니, 생산 시설이 낙후됐다느니, 부작용이 많다느니, 품질에 비해 가격이 너무나 없이 비싸다느니… 나중에는 손님들에게까지 무슨 중대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것처럼 은근한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다.

나는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었다. 내가 파는 화장품이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를 말하지 않고 길 건너 가게의 화장품이 얼마나, 어떻게 나쁜 지만을 이야기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좋은 점까지도 흠을 삼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질 않았다. 예를 들자면, 할인 행사나 포인트를 쌓아 주는 것도 이미 다 그만큼 가격에 거품을 더해놨기 때문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 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다. 뾰족한 수를 일러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평계 아닌 평계로 슬슬 자리를 피하게 됐으니 나도 참 인정머리 없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전 우리 동네, 제법 호황을 누리는 파일가게 옆 골목에 작은 파일가게가 생겼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분식집 자리, 콧구멍만 한 가게에 올망졸망 진열된 파일은 척 보기에도 옆집 가게와 비교가 됐다. 옆집 가게와 달리 손님도 드물었다.

그 가게의 안주인과 말을 트게 된 것은 내가 파일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활짝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는 안주인 덕분이었다. 매번 인사받기가 미안해서 사과 몇 개 사고, 떨기도 한 패사고, 가랑비에 웃 젓는다고 그러다 보니 단골이 된 것이다.

이상한 것은 그 가게의 파일 값이 그리 싸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바로 옆 가게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비싼 편이었다. 더 이상한 일은 가격이 조금 비싼데도 그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손님들은 대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가격을 묻고 나서 비싸다면 옆 가게로 가는 사람, 비싸다고 하면서도 파일을 사는 사람.

비싸다고 하면서도 파일을 사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말했다. 맛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주인도 웃으면서 말했다. 네, 우리 집 파일은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서 따로 골라놓았던 등외품(?)을 두어 개씩 덤으로 넣어주었다. 이게 모양만 이렇지 맛은 최고예요, 하면서.

안주인도 그렇고 바깥주인도 그렇고, 어쩌면 부부가 그리도 똑같은 지 절대로 옆집 가게 흥을 보는 법이 없었다. 누가 옆집 가게 파일이 싸고 맛있는데 하면 싸고 맛있으면 좋지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여기는 맛있는데 좀 비싸다고 하면 비싸고 맛있는 게 저희 가게 매력 이에요, 하고 웃거나 이 딸기는 유기농 비닐하우스에서 친환경 농법 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섭취하는 맛과 향이 좋다, 인삼 영양제를 주기적 으로 살포해서 당도도 16 브릭스 이상으로 달다, 뭐 이런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러나 정말 맛있는 파일을 팔던 그 가게는 1년 반쯤 후 문을 닫고 말았다. 자리도 좋지 않은 데다가 ‘맛있다’는 생략되고 ‘비싸다’라는 말만 잔뜩 부풀려진 악의적인 입방아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부지런 한 바깥주인이 1주일에 두 번씩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까지 가서 직접 최상품을 골라오는 터라 달고 싱싱한 것으로 치면 비싸도 비싼 게 아니었는데 그야말로 입속에 든 도끼가 짙은 부부의 꿈을 뻥정 절라버 린 꼴이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판을 보면서 친척 동생과 파일 가게 짙은 부부 생각을 했다. 나는 이렇게 홀륭하고 이렇게 청렴결백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며 자신의 장점을 알리기보다, 상대 후보에 대해 있는 흥 없는 흥, 있는 트집 없는 트집, 중상모략에 흑색선전, 유언 비어까지 집중포화 퍼붓기에 급급한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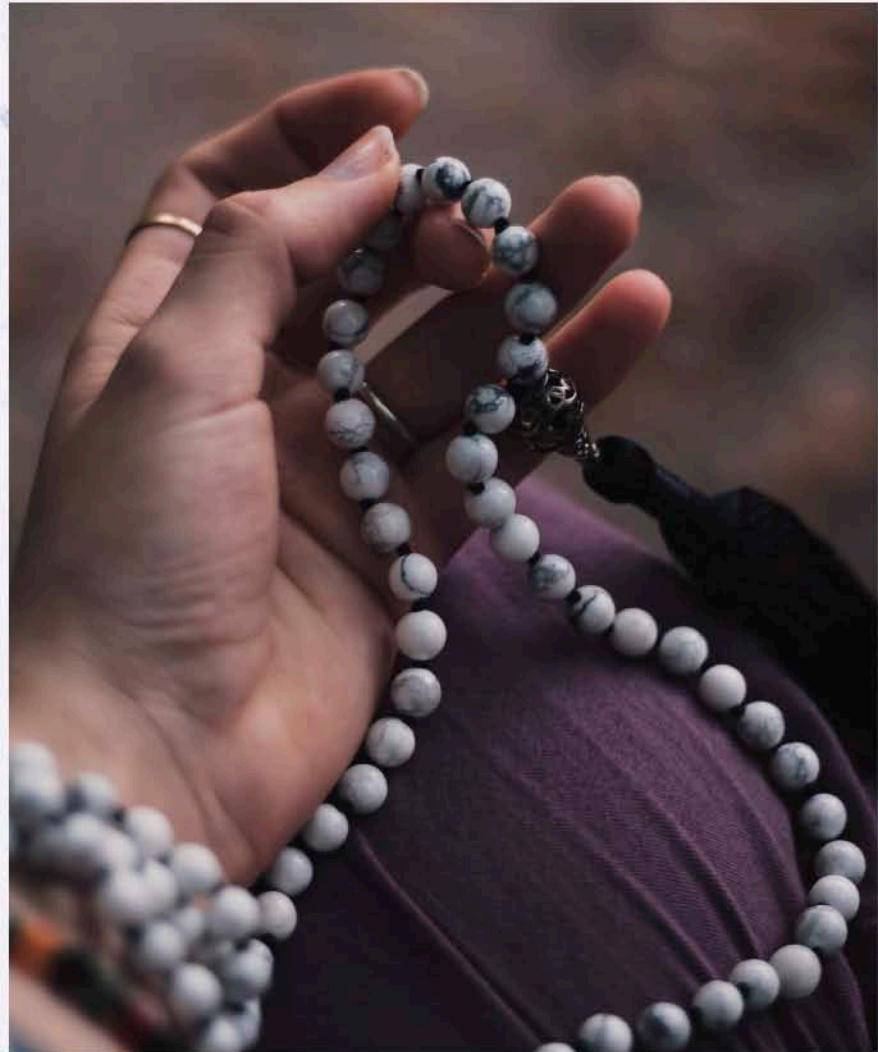
함량 미달인 사람일수록 말 타면 경마 잡하고 싶어 하는 법. 국민이 준 힘을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변질시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살피는 대신, 감언이설에 빠져 그를 맹종하거나, 음해성 소문만으로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함부로 단정 짓는다. 투표가 끝이 아니다.

투표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냉철하게 고민 해야 한다. 무조건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 그만큼 해낸 일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소리일 테니 다시 한번 눈여겨볼 일이다.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혼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슈타니파타」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아직 어지럽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다. ■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갚을 줄 알면 그 사람은 공경할 만하다. 조그만 은혜도 잊지 않 았거늘 하물며 큰 은혜를 잊겠는가. 그는 내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은 멀다 할 수 없고, 늘 내 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제자들이여, 나는 항상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을 찬탄하기 때문이니라.

반대로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은혜도 기억하지 않거늘 하물며 조그만 은혜를 갚겠는가. 그는 나와 가깝지 않고 나도 그와 가깝지 않다. 비록 나의 제자로서 내 곁에 있더라도 그는 내께서 멀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은혜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을 기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이여, 항상 은혜 갚기를 생각하고 은혜 갚지 않는 것을 배우지 말라. 제자들이여,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하느니라. 그 때에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밟들어 행하였다.

위 내용은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여러 제자들에게 설한 가르 침으로써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교훈이다.

『중일아함경 권 11, 대정장』이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사를 입고 자기 결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비록 어떤 사람 이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사람 은 공경할 만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 이 있다.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주위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극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간혹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극도로 혐오한다.

이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은혜의 종류와 그 보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경전에서 은혜의 종류와 그 보답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불교에서는 다섯 가지 종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1.국가의 은혜 2.부모의 은혜 3.스승의 은혜 4.단월의 은혜(시주의 은혜) 5.착한 벗의 은혜 등이다.

부처님은 이 경전에서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얼마나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은 개인적인 동물이면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존하고 있음을 깨닫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으므로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떠나간 그리움이
무거운 옷을 입고 창가에 섰다

그 시선이 마주칠 때
꼼짝할 수 없는 사실들

하늘이 떠이는 시간
달은 망토를 걸쳤다

검고 길게 누운 산
그 넘어 별 쓸어질 곳

나는 어느새 눈을 감고 다가가
바람을 세고 있다
저녁, 창가, 나
셋이서 떠난 하나를 그리며

토닥 토닥
서로의 어깨를 두드린다.



자비선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4

묘원화 전수
벽룡사



발표 지운 스님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 한국 차명상 협회 이사장)
토론 월호 스님 (행불선원 선원장, BBC 불교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진행자)

명상코칭

명상에도 코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운 스님의 주장이다. 만일 수행자가 삿된 체험이나 삿된 깨달음을 바른 것이라고 잘못 알고 우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명상의 동기가 바른지, 명상의 방향과 수단이 바른지 확인해 주고, 명상의 현상을 바르게 인도해 줄 길잡이가 필요하다.

명상은 반드시 명상의 수단을 가지는데 이는 직관과 추리이다.

직관은 『염처경』에서 말하는 정념(알아차림)이다. 정념은 관찰대상에 대해 착각과 왜곡을 일으키는 의미부여, 감정과 생각을 덧붙임, 다른 것과 결부시킴, 없애려고 하는 생각을 중지시킨다. 단지 관찰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그러면서 관찰대상을 판단하고 비판까지 한다. 단지 머리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한다. 추리는 원인과 조건을 잘 사유하여 진실을 아는 것이다. 이 직관과 추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같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열반을 체득하고 추리하는 사유통찰이, 모양 없고 색깔 없는 마음의 본성이 곧, 공성이고 법계가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과 추리가 없는 명상은 명상의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삿된 깨달음과 삿된 체험이라는 잘못된 명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은 잘못된 명상의 대표적 유형들이다.

1. 명 때리기 명상

대표적인 잘못된 명상으로 명하니 있는 것을 명상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명할 수밖에 없다. 혜능은 『돈황본 육조단경』에서 이 것을 무기공^{無記空}이라 했다. 명하니 있으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머리는 쉴 수 있지만 정신 상태가 망하여 건망증, 초기 치매와 비슷한 현상을 가져온다.

마음은 편안하지만 사리 분별하는 힘이 없어 어떤 일을 하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 명료한 마음상태에서 일어나는 삼매가 일어나지 않고, 지혜 또한 일어나지 않아 대자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2. 느낌 명상

나타나는 현상을 느낌으로 아는 것을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이다. 느낌은 관찰 대상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느낌은 대상을 좋은 싫든 옳바르든 그르든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매와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3. 느끼려는 의도를 가지는 명상

나타나는 현상을 느끼려는 의도를 명상 수단으로 삼는다.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 느낌이다. 보이는 현상은 시각적 느낌이고, 냄새는 후각적 느낌이며, 접촉하여 일어나는 느낌은 촉각적 느낌이다. 이러한 현상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려고 하는 순간, 느낌을 알 수 없다.

느낌이 일어난 뒤 표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의도가 일어나므로 느끼고자 하는 느낌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느끼려고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명상자는 한 번도 느낌이라는 현상을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느낌이 없어 체험이 없으므로 노력할수록 힘만 들고 쉽게 피로해져 명상을 쉽게 중단하게 된다.

4. 관찰대상에 몸과 마음을 모두 투신하듯 맡기는 명상

명상 수단이 없이 명상의 대상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명상이다. 예를 들면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에 빠져들거나, 향기에 빠져들거나, 촛불을 켜놓고 보이는 대상(촛불)에 빠져드는 명상이다. 음악이나 촛불, 향기와 같은 관찰대상에 빠져 집중하면 마음은 편안할 수 있지만 이 명상 수단에는 판단 기능과 비판 기능이 없으므로 이치를 파악할 지혜가 생기지 않고, 전망증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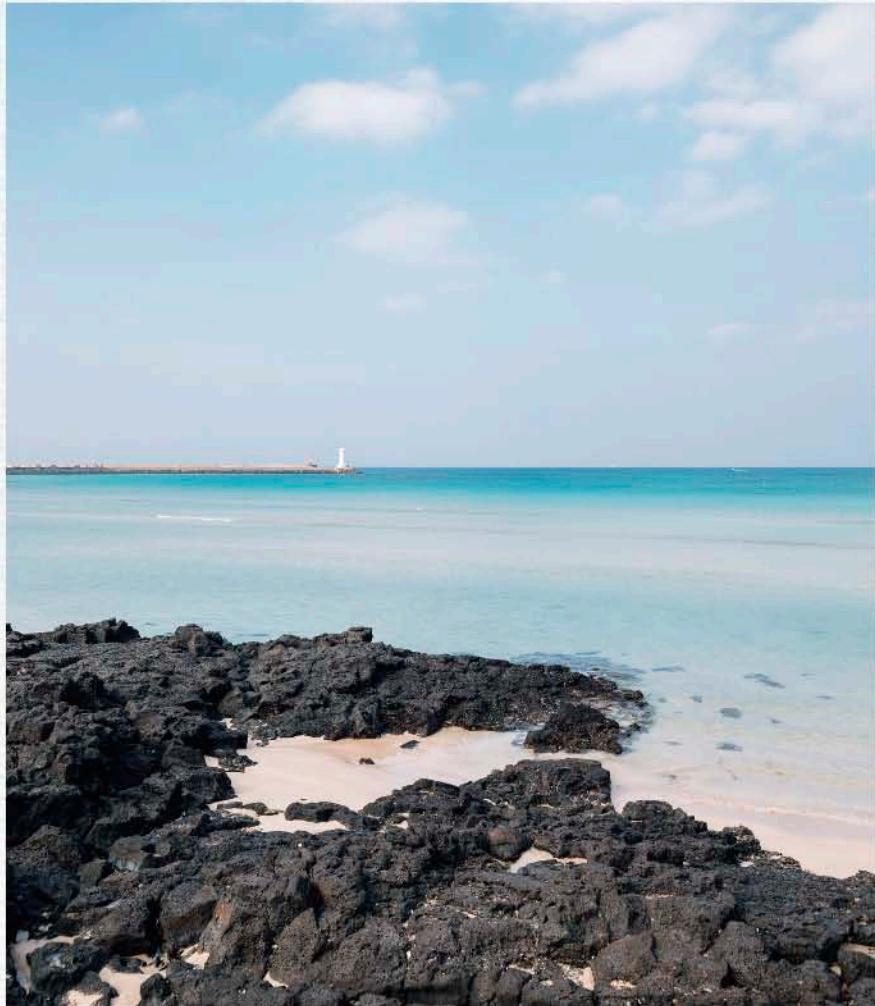
5. 생각을 없애는 명상

나타나는 현상을 억지로 없애거나 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명상이다. 이것은 현상의 이치(법)를 보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번뇌가 치성하게 일어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무아를 체득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없애고 일어나는 사고의 작용을 없애는 것은 바른 명상이 아니다.

사고 작용이 없다면 일정부분 자아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는 있지만 무아에 대한 앎(지혜)을 성취할 수는 없다. 사고 작용은 지혜를 일으키는 바른 명상 수단이기 때문에 사고 작용을 끊어버리면 지혜가 일어나지 않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게 된다. !



축적의 시간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조선후기 유학자, 실학자



평소 눈앞에 없어도 견디기 어려운데

더구나 남쪽 바다에 홀로 갇힌 신세라네

아비와 아들이 요사이 액운을 만났지만

잠깐 동안의 걱정이니 밀할 것 없네

平居暇外尙難堪
況此孤囚瘴海南
父子年來罹厄會
暫時憂惱不須談

평거규외상난감
황차고수장해남
부자년래리액회
잠시우퇴불수담

「동계집(桐溪集)」 1권

「들림병을 피하여 산사(山寺)로 가는 시아(詩兒)를 전송하다.(送詩兒避疫之山寺)」

정온이 아들 정창시_{鄭昌時}에게 보낸 시다. 당시 정온은 제주도에 유배 중이었고, 정창시는 산사에서 피접_{避接} 중이었다. 피접은 전염병을 피해 거처를 옮기는 것이다. 피우_{避憂}라고도 한다. 당시로서는 유일한 전염병 예방책이었다.

평소에도 아들이 눈앞에 없으면 불안한데, 아버지는 외딴 섬으로 유배가고 아들은 전염병을 피해 산사로 올라간 처지이니 더욱 불안하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한다. “지금 우리의 불행은 잠깐 동안의 걱정에 불과하다.” 곧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이다.

유배와 피점은 여러모로 닮았다. 원치 않는 객지 생활이라는 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가족과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다. 수시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다. 이런 생활이 끝없이 이어진다. 답답해 미칠 노릇이다.

유배와 피점은 정체의 시간이다.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선 것 같다. 미래가 암담하니 현실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맹하니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이러니 유배와 피점은 버리는 시간이 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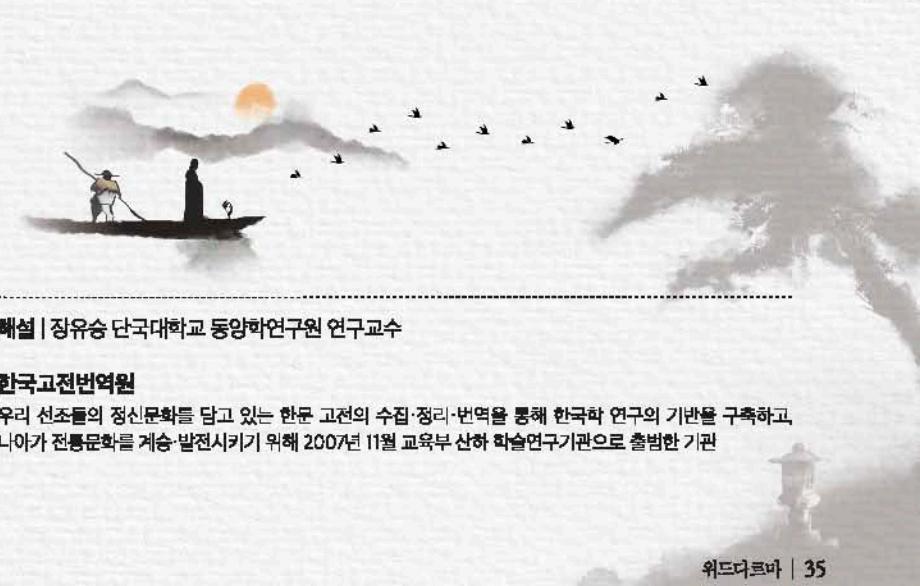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정체의 시간을 '축적의 시간'으로 삼았다. 타인과의 단절을 내면으로 침잠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혼들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다.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은 19년의 유배기간 내내 두보의 시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전집을 무려 2천 번이나 읽었다고도 한다. 그가 '조선의 두보'로 일컬어진 이유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방대한 저술『여유당전서』가 18년 유배생활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정약용 역시 유배에서 풀려난 뒤 18년을 더 살았다. 비록 정계에 복귀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저술 작업은 계속되었다.

피점은 길어야 몇 달이니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오건(吳健, 1521~1574)은 「중용」 한 권만 들고 시골집으로 피점 갔다. 무려 1만 번을 읽었다. 그는 퇴계조차 인정한 「중용」의 대가가 되었다. 임유후(任有後, 1601~1673)는 짧은 시절 피점 가서 왕발(王勃)의 「등왕각서(唐王閣序)」를 만 번 넘게 읽었다. 훗날 그 어려운 변려문(變體文)을 볼만 들면 막힘없이 완성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의 일상이 정지 상태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냥 끝나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든 것을 바이러스 탓으로 돌린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의 불행은 잠깐의 격정일 뿐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뿐이다. 그렇게 한다면 정지된 일상은 미래를 준비하는 축적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 ■



해설 | 장유승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감정은 전이된다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승실대학교 겸임교수
<『美지』 발행인
컬럼집 <배제와 포용> 저자



자기 기분을 알고 싶으면 자기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웬지 좋아지구요 반대로 불안해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뎅달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들지요 이런 현상을 감정의 전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방송작가 일을 하며 썼던 라디오 오프닝 멘트이다. 사람의 감정은 개인적인 심리 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혀냈는데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기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기분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기분은 전이된다고 하는 것이다.

❷ 내 기분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분을 전이해주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기분 나쁘다고 말 한마디 안하는 사람이 있다. 입을 굳게 닫고



있으면 표정이 밝을리 없다. 그래서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분위기가 썰렁해서 다른 사람들도 뎅달아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았어도 충분히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 된다. 그리고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있는데 화를 내뿜는 사람도 있다. 자기는 자기 기분을 발산했을 뿐이지만 주위 사람은 그 뿐이내는 화기 때문에 마음 여기 저기 상처를 입게 된다.

언어폭력은 정서 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폭행이다. 화를 풀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 대답을 해주다가 큰 쌔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전이시키는 것은 고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분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고통을 전이시키고 있다. 좋은 기분을 전이시키는 사람도 있다. 기분이 우울했다가도 그 사람을 보면 마치 잔뜩 흐린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듯이 기분이 밝아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매사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사람은 기쁨을 전이해주게 된다. 나는 기쁨을 전이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④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 사람이 싫어할 것 같거나 난감해할 것 같으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참아버린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장애 상태로도 나는 충분히 보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적으로 부담스러울텐데 심정적인 부담까지 준다면 사람들은 내 곁에 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에 나는 항상 내가 먼저 상대를 배려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는 화가 나지만 금방 풀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운 마음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다. 난 누구하고도 잘 지낼 수 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모나지 않게 지내려고 애쓴다. 부딪혀서 충돌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충돌하며 생긴 상처는 남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부딪히지 않는 방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의견을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동의를 한다. 물론 그것은 내 생각이 옳았을 때이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면 깨끗이 잘못을 시인한다. 어떤 부연 설명이나 변명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인데 이런 소박한 내 감정이 전이되기를 바란다.

⑤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요즘 코로나19로 온 나라 아니 온 세상이 갑금당해버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만들어졌다. 바이러스 전염이 무서워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재택근무를 권한다. 친구를 만나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망설여지고, 직장 동료들과 회식도 못한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던 일들이 금지되자 일상이 지루하고 마음이 우울하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리 마음에 병균 이상의 고통을 주고 있다. 회망, 용기, 꿈, 열정 이런 단어들이 사라진 듯하다. 이러다 우리 모두 좀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두렵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 코로나19가 준 교훈은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큰 즐거움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불교의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이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불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서 명상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한층 성숙시킬 것이다. ▲



삼사라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나는 힘든 일이 있거나 사람들에서 모욕과 무시를 받을 때면 외우는 주문이 있다. “나를 죽여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바다가 된다.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난, 주변 사람들이 쉽게 보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의 객기 정도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어릴 때는 상처가 되었다.



10년 전쯤 우연한 기회에 불교영화 “삼사라”를 보게 되었다. 삼사라는 티벳어로 “윤회”라는 뜻이다. 내용은 조선시대 김만중이 쓴 구운몽과 비슷하다. 주인공 타쉬는 다섯 살에 출가하여 20년을 수행하였다.

타쉬는 동굴에서 3년 3달 3주 3일간의 고된 수행을 마치지만, 마을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 폐마에게 한눈에 반해 파계하고 세속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도 질투와 슬픔, 유혹과 시련, 사회의 부조리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다시 출가를 하게 된다.

다시 출가를 하여 절로 돌아가는 길에 돌탑에 있는 돌에 새겨진 글씨를 보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한 방울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돌 뒷면에는 “바다에 던지면 되느니”라고 쓰여 있다.

한동안 이 말이 나의 화두가 되었다. 바다 속에는 물방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바다에 물방울이 없는 것도 아니다. 불교적으로 바다 속에 있는 물방울의 상태를 “무아”, “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를 죽여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이 그렇게 나의 주문에 되었다. 우리가 화가나고, 짜증나고, 증오심이 생기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유식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7식 “말라야식”이라고 한다. 이 말라야식이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만든다.

불교에는 진언염송, 관법, 간화선, 위빠사나 등 다양한 수행법이 있지만 결국은 7식 말라야식을 다스려 이기적인 마음을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고, 8식 아뢰야식을 몸과 입과 뜻의 바른 실천으로 밝고 맑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제 콘필드가 쓴 「놓아버림」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다.

『어떤 사람이 양손에 식료품이 가득 든 봉투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와 부딪쳐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요. 봉투 안에 든 물건들이 모두 길바닥으로 쏟아졌겠죠. 달걀은 깨지고 주스 병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급히 챙기려던 그는 그만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맙니다.

“이 바보 같은 자식, 똑바로 보고 다녀! 눈은 어디 두고 다니는 거 야!” 그렇게 성을 내기 직전, 그는 자신과 부딪친 사람이 진짜로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역시 떨어진 물건을 찾기 위해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던 화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연민과 동정심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다 친 데는 없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갈등과 노여움의 근원이 무지임을 깨닫는 순간, 지혜와 자비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인간 본성이 지닌 자비심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가 나를 죽여 바다에 던질 수 있다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비와 용서라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분노를 버리고
내 자만심을 버리고
내 모든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고통과 불행이
스스로 나를 떠날 것이다.



운명을 뛰어넘는 부처님 말씀 上

법상 스님
원광사 주지
다음카페 '목탁소리' 지도법사



불교에서는 운명이나 숙명 대신에 스스로의 삶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인과因果, 업보業報론에 기초하고 있다. 누구나 물론 전생의 업인業因에 따라 자기만의 삶의 모습을 갖고 태어난다.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살 것인지, 어느 정도의 학벌과 능력과 외모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얼마 정도의 행복을 누리다가 언제쯤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 업력業力을 받고 태어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대학이나 학벌을 가지게 될 것인지, 어떤 회사에 취직하여 어느 정도까지 진급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인연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게 될 것인지, 언제 어떤 병이나 사고로 얼마만큼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 돈과 재산은 어느 정도를 벌어 쓸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살다가 언제쯤 몇 살 쯤 죽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삶의 윤곽이 전생의 업식業識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전생의 업을 그대로 받을 것이니 이번 생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더라도 절대 그 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것도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전생, 또 오랜 전생을 이어오며 지어왔던 온갖 행위들이 지금 내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생을 어떻게 펼쳐나가게 될지에 대해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정의 원인은 내 과거의 행위에 있다. 내 과거의 온갖 행위들에 의해 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내 현재의 행위에 따라 또 다시 내 미래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신의 욕심과 집착의 크기에 따라, 자신의 마음·공부와 수행과 기도의 정도에 따라, 내 삶은 언제든지 180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은 그 궤도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있을, 내년에 있을 내 삶의 궤도가 내 행위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업*이라고 이름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운명이나 숙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반해 업이라는 것은 언제고 바꿀 수 있으며,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면 바로 그 한 번의 행위가 1년 뒤 파산 할지 모르는 업연을 2년 뒤로 늦춰줄 수도 있다.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과 벗을 찾아가 위로해 주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 해 주었다면, 이번 생에는 있지도 않았을 선지식 스승과의 인연이 생겨날 수도 있다.

오늘 부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며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욕심과 집착을 말끔히 비워냈다면 다음 달에 닥칠지 모를 급성 위장염이나 위암 판정이 10년 쯤 뒤로 늦춰지게 될 수도 있다.

오래도록 마음속에 읊어리 쳐 있던 미워하는 원수에 대한 불같은 화를 다스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를 해 주었다면 몇 달 뒤에 닥칠지 모를 환병이 소멸될 수도 있다.

필요하다고 그 때 그 때 사들이고, 여유가 있다고 아끼지 않고, 절약하지 않았던 삶의 습관이 10년 뒤에 올 퇴직을 1년 뒤로 앞당길 수도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한 마디의 말이 지금의 내 높은 지위를 1년 빨리 끌어내릴 수도 있다.

어디 그 뿐인가. 파리나 모기, 풀벌레와 작은 곤충들의 생명을 별 생각 없이 죽이거나 괴롭혔다면 그것은 내 명*을 몇 년씩 앞당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산을 함부로 깎고, 나무를 함부로 베는 행위로 인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폭풍우가 내가 사는 지역을 강타했을 때 바로 내가 사는 집이 무너지고, 내 터전이 깎여나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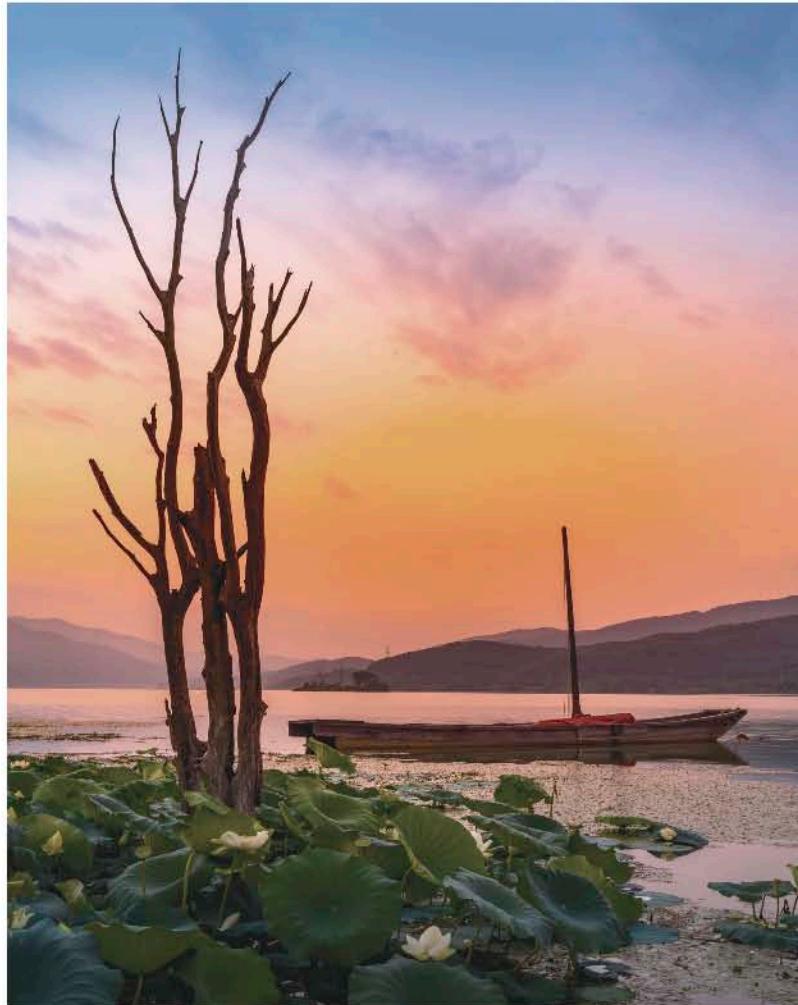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업은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

-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블로그



내 마음의 휴양지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자성 전수
법성사



두물머리는 경기도의 명소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의미로 ‘두물머리’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한자로는 양수리이라 합니다.

양수리에서도 나루터를 중심으로 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예전에는 이곳의 나루터가 사통팔방으로 번창하였으나 팔당댐의 건설로 나루터의 기능이 점점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사계절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한국관광명소 100선』에도 선정될 만큼 경관이 뛰어난 이곳은 이른 아침에 피어나는 물안개와 강으로 늘어진 많은 수양버들들이 강가마을의 아름다움을 더해 드라마나 광고 촬영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겨울의 설경과 일몰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큼 아름답고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 밖에도 주변의 가볼만한 곳들이 많은데 연꽃으로 유명한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수종사, 그리고 정약용 선생 생가는 추천해 보고 싶은 장소들입니다.

세미원은 18만 제곱미터 규모에 연못 6개를 설치하여 연꽃과 수련, 청포를 심어놓은 세계적인 수련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항아리 모양의 분수대인 장독대 분수와 프랑스 화가 모네의 흔적을 담은 모네의 정원 등 불거리 또한 많은 곳입니다. 은실인 상춘원에는 조상들이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이용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의 말사인 운길산의 '수종사'입니다. 1459년 세조가 금강산 구경을 다녀오다가 양수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깊은 잠에 들었다가 한밤중에 난데없는 종소리가 들려 잠을 깬 세조가 부근을 조사하자 동굴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뜻밖에도 그 굴속에 18나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굴속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나와 이곳에 절을 짓고 수종사라고 이름 지었다는 유래가 전해집니다. 올라가는 길이 90도 각도의 좁은 비포장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수종사에 도착해 북한강과 양수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바라보면 고됨도 잊게 만드는 감동을 전합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사원이며 500년 된 은행나무 등 수종사의 경관은 최고를 자랑할 만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단풍이 들었을 때의 장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두물머리를 바라보며 고요한 마음으로 차 한잔하고 갈 수 있는 무료 찻집인 삼정현도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세 번째 조선 후기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이며 목민심서, 흄홍신서 등 500여 권의 책을 편찬하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인 여유당과 박물관은 아이들과 함께 가 볼 만한 곳으로 추천합니다.

역사적인 위인에 대하여 들려보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잎 반죽으로 만든 연학도그도 이곳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멋진 경관과 함께 이곳의 명물도 한번쯤 먹어보시길 추천해 봅니다. ^



오리무중을 즐기다

안개초 - Baby's breath

이태용
원예 교육가



척박해도 좋아요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물을 사 마시는 게 혼한 일이 되었지만, 한 20년 전쯤 유럽에 다녀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물 사 먹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물속에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것이었지요.

유럽의 물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유럽 대륙의 지층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석회질 토양은 바다 플랑크톤이나 조개 등의 화석이 퇴적되어 만들어지는데, 지하수가 이 토양을 거치면서 물속에 석회 성분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즐겨 마시는 와인. 그 와인의 재료가 되는 포도 열매는 기름지고 비옥한 일반 토양보다 딱딱하고 척박한 석회질 토양을 좋아합니다. 석회질 토양에서 만들어진 포도 열매만이 최고의 와인 맛을 낼 수 있지요.

향기로 우리 삶을 즐겁게 해 주는 허브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이지, 히솝, 라벤더, 레몬밤, 마조람, 로즈마리, 타임 등 많은 허브 식물도 남유럽의 석회질 토양이 고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허브 식물은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만들어냅니다.

넉넉하고 푸근한 느낌 가득

안개초. 이 식물 또한 포도나무나 허브 식물들처럼 석회질 땅을 좋아합니다. 학명 '집소필라 Gypsophila'에서 'Gypso'가 석회를, 'phila'가 사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안개초가 석회를 사랑하는 식물이란 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안개초에는 한해살이풀과 여러해살이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코카서스 지역이 고향인 한해살이 안개초가 한 번 꽃이 편 다음 시들어 버리는 반면, 지중해 연안이 고향인 여러해살이 안개초는 하얗고 작은 꽃을 매년 같은 시기에 피웁니다.

이 두 종류 가운데 우리에게 더 친숙한 쪽은 여러해살이 안개초입니다. 꽃꽂이나 꽃다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개초가 바로 이것인데, 가

늘고 여러 보이는 가지에 다닥다닥 꽃이 붙어 있는 모습은 이름 그대로 뿐만 안개 속을 떠오르게 합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과 안개초로 수업을 할 때마다 이 꽃의 이름이 왜 안개초인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꽃이 모여 있는 모습이 안개 같아서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개초 다발을 아이들의 얼굴에 바싹 대 주고, 뭐가 보이는지 어떤 향기가 나는지 느껴 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눈앞이 뿐예지니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서서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안개초를 받아들입니다.

안개초로 꽂꽂이도 하고 꽂다발도 만들면서 안개초가 만드는 ‘안개’를 즐깁니다. 저는 안개초 수업을 할 때는 대개 다른꽃과 섞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야만 안개초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입니다. 물론 안개초가 꽂꽂이나 꽂다발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식물들처럼 화분에 심어도 꽤 보기 좋습니다. 꽂꽂이나 꽂다발 속 안개초만큼이나 화분 속 안개초도 너너하고 푸른한 느낌을 전해 줍니다.

인생에는 표지판이 없지만

안개초에 살며시 얼굴을 대어 봅니다. 촉촉하고 푹신한 안개 방울들이 입과 코를 스쳐 지나갑니다. Baby's breath란 영어 이름처럼 아기의 숨결이 얼굴을 간질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얼굴을 간지럽히던 그 숨결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안개초는 얼기설기 복잡한 선들로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아기의 숨결은 사라지고, 온통 풀과 나무뿌인 숲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리무중’이란 말은 바로 이런 안개의 숲을 보고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오리무중이기는 안개초 속이나 우리 인생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행 그 어디에도 방향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으니까요. 원쪽으로 가면 낭떠러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막다른 길이 우리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석회질 토양은 사람이 마시는 물을 만드는 데는 최악의 조건이지만, 식물들이 훌륭한 맛과 향을 내는 데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막막하고 두려운 안갯속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앞쪽으로 천길만길 낭떠러지이면 어떻습니까? 살짝 디뎌보고 옆으로 가면 되지요. 옆쪽이 막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뒤통아가면 됩니다. 절은 안개, 오리무중이야말로 가족의 진한 사랑을 느끼고 생명의 숨결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



'반야심경'에 그 반야?

고진희
밀인사 교도



작년 3월, 우리 집에는 15년 만에 식구가 하나 늘었다. 한창 사춘기인 남동생의 마음을 집으로 돌려보자는, 갓 대학에 입학한 딸래미의 사심어린 꼬드김에 넘어가 태어난 지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으로 입양한 것이다.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 강아지를 키우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동생이 친구 집에서 낳은 지 며칠 된, 눈도 못 뜨고 꼬물거리던 새끼 강아지를 신발주머니 속에 얹어 가지고 와서 종이박스에 이불 깔고 우유 먹여가며 온 가족이 정성껏 키웠었다. 그 보통이가 자라 임신을

하고 알록달록 아롱이, 다롱이도 낳고 집 마당에서 다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대문 틈으로 동네 아이들이 건네준 오징어를 먹고 갑자기 생사를 달리했었다.

살아오면서 나는, 강아지를 키우자고 아이들이 졸라댈 때마다 땃뺏 하게 굳은 보통이를 둘러메고 산으로 올라가시던 아버지의 슬픈 뒷모습을 보면 동생과 한없이 올었던 그 아픈 기억이 떠올라 차갑게 거절하곤 했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엄마인지라 사춘기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서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이 녀석을 처음 본 순간 털도 눈동자도 온통 새까매서는 엄청 기운차게 발발거리며 활아대는 모습이 우리 아들과 꼭 닮아 '너구나!' 싶었다. 강아지라 해도 식구가 되는 것은 보통의 인연이 아닌지라, 그 많은 강아지 가운데 이 녀석만 눈에 들어온 건 신기한 일도 아니었다.

지금은 까망이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은은한 은빛으로 변하는 실버 푸들이라 했다. 알러지 비염이 있는 우리 아들에게는 사람 머리카락 보다도 털이 더 안 빠진다는 이 견종이 더더욱 딱 이었다.

가족이 되었으니 이름부터 지어주어야겠지? 뭉치, 깜이, 정씨 성인 우리 식구니까 말로(정말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나는 뭔가 의



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평생을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불릴 이름인데, 그 이름처럼 살기를 바라며 나는 '반야'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반야는 처음 데려올 때처럼 에너지가 넘치며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로 커가고 있다.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 눈치를 볼 줄도 알고 주인이 기분 안 좋아 보일 땐 애교도 부릴 줄 안다.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명명 짓으며 현관 쪽을 향해 문을 열어주라는 머릿짓을 하기도 한다.

이름처럼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정 많은 우리 딸은 반야 일이라면 만사 제쳐들 만큼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데면데면 하던 뚝뚝한 아들도 이제는 귀엽고도 살짝 귀찮은 동생 하나쯤 생긴 듯 반야를 대한다. 남편은 특하면 "아이구, 불쌍한 우리 반야, 왜 개로 태어나 가지구.." 하곤 한다. 측은지심이다. 가여이 여기는 마음은 사랑이므로 이 말은 남편의 또 다른 사랑표현법인 것 같다.

무작정 데려오기는 했지만, 요즘은 옛날과 달리 강아지 목뒤에 등록 칩을 심어 견주 신고도 해야 하고, 때마다 예방접종에 먹여야 하는 기생충 약들, 매일 시키는 산책에 일주일에 한번은 목욕을 시켜주어야 하니,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일이 얘기 한 명 키우는 일만큼이나 힘들다. 가족 모두가 학교에, 직장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 가족에게

강아지를 키우는 일은 어쩌면 시간을 쪼개야하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늦은 저녁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혼자 심심하고 지루했던 긴 하루를 보내고 반가운 마음에 주인을 보고 문 앞에서 펄쩍펄쩍 뛰며 반기는 반야를 보면 이런 귀찮음은 온데 간 데 없어지고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까지 든다.

반야가 오래오래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우리 집 막내로 사랑받고 사랑주면서 함께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먼 훗날, 상상하기도 두려운 순간이지만 이 녀석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래도 이런 주인들 만나서 한세상 행복 했었노라고...' 그런 평온한 눈빛으로 이별한다면 반야를 보내는 마음이 조금은 덜 슬프고 위로가 될 것 같다.

오늘도 아빠 따라 누나 따라 집안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우리 집에 너자이저 귀염둥이 반야야, 널 많이많이 사랑해! !



나라마다 다른 차문화 3부 (마지막이야기)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중국

중국은 차 문화의 발상지라고 불릴 정도로 차 종류가 다양하며 자신이 마시는 차와 전용 찻잔, 차를 우려마실 수 있는 병을 가지고 다닐 만큼 차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약 5천여 년 전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중국의 차 문화는 불교와 함께 일본과 티베트로도 전해졌으며 이후 무역상들에 의해 서양으로도 널리 알려져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차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차의 종류 또한 200여종이 넘는데 그중 중국 북전성과 광동성 지역에서는 주로 우롱차를 마시고 양자강 이남에서는 녹차와 홍차를, 산둥성 이북에서는 제스민차를 주로 마신다고 합니다.

중국차는 차를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 곡우 이전에 따는 찻잎을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네물차로 구분하고, 차의 발효 정도에 따라 불발효차인 녹차, 반발효차인 청차(우롱차)와 황차, 발효차인 홍차와 흑차(보이차)로 분류합니다.

또한 차를 만드는 방식과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녹차와 홍차는 70~80°C 물에 우려야 가장 고소한 맛과 맵은 맛이 달하고 보이차는 차의 깊은 맛을 끌어내야하기에 끓는 물에 우려내야합니다.



중국에는 수많은 소수민족도 많아 차문화 또한 제각각이여서 고산지대에 사는 티베트 민족인 장족이 즐기는 수유차가 있으며 운남성 지역의 백족이 즐기는 산도차가 있다고 합니다.

산도차는 귀한 손님이 왔는 때 내는 차로 첫 번째 차는 쓴맛의 차로, 두 번째 차는 소량의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고, 세 번째 차는 꿀과 여러 가지 견과류나 산초, 생강 등을 넣어 달고 쓰고 매운 여러 가지 맛을 내는데,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세 단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차를 마실 때는 상대방의 찻잔이 비지 않도록 계속해서 뜨거운 차를 따라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며 흔히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중국의 전통 혼례식에서는 정의나 존중을 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차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터키

터키는 이슬람교와 유럽식 사고, 아시아적인 요소까지 두루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예로부터 실크로드의 종착역이라고 불릴 만큼 홍차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홍차 소비량이 한때는 한 사람당 1년에 6.7kg정도였다고 합니다.(영국 2.7kg, 한국 60g) 터키에 있다 보면 하루에 단 한번이라도 차를 마실 기회가 생기고 시장에서 물건을 놓고 홍정 할 때에도 가게 주인이 차를 권할 정도라고 합니다.

과거 터키는 전통적으로 커피를 마셨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면서 커피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커피를 대체할 또 다른 음료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 터키가 차 재배에 적당한 기후임을 알아 차가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터키인들이 차를 마실 때 꼭 준비하는 2단의 구리주전자인 차이단록과 차이바르닥이라는 허리가 잘록한 유리잔이 있습니다.

차이단록 아래쪽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윗주전자에 차를 넣고 중탕하다 물을 넣고 끓여주는데, 아래쪽의 물이 끓으며 위쪽으로 가면서 진한 차가 우러나오는 원리라고 합니다. 마실 때는 진하게 우러낸 차를 차이바르닥에 따르고 물을 부어서 취향대로 희석해 먹거나 각설탕을 넣고 스푼으로 소리 내어 저은 뒤 마신다고 합니다.

진한 차를 코유차이, 연한 차를 아측차이라고 하며 터키인들은 아침에는 진하게 저녁에는 연하게 마신다고 합니다. 터키의 차문화 중 특이한 것이 있는데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찻집문화입니다.

찻집은 남자들끼리 담소를 나누고 게임을 하고 축구경기를 보며 응원하는 장소로 여겨졌었고 최근 들어서야 실내 금연 문화와 남녀데이트 장소로 찻집문화가 바뀌면서 그 문화가 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의 차 문화가 중국이나 영국에 비해 오래되었지 않았지만 매우 밀접한 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매일 마시는 차가 커피일지 모르지만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에서 유래한 차는 아이스티입니다.

1904년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서 영국인 홍차 상인이 인도차를 홍보하던 중, 더운 날씨로 뜨거운 홍차에 사람들의 호응이 없자 얼음을 가득 채운 컵에 뜨거운 홍차를 부어서 아이스티로 만들었는데 당시에 냉장고가 아직 보급되지 전이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아이스티가 상품화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스티에 레몬을 넣어 마시는데 이것은 홍차색을 내는 적색의 색소가 산성에 의해 밝아지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나라마다 다른 차문화 1,2,3부”를 통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차문화를 보았습니다. 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는 음료이자 문화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간단한 커피나 차 한잔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의 건강음료로서의 의미를 뛰어 넘어 그 나라의 역사와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문화로 소개되면서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마시는 차 한잔에서 국경 넘어 나라의 차 문화를 이해하듯 내 주변의 이웃과 더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심스런 궤짝

법일 정사
수인사 주교



사려 깊고 덕망 있는 한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하였다. 어느 날 저녁 어느 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그에게 충직한 하인이 말했다.

“주인님, 안방마님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마님께서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커다란 궤짝을 방 안에 들여 놓으시고는 꼼짝도 안 하십니다. 주인님의 할머니 것이지요. 그 속엔 옛날 자수 품이 몇 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뭐가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님은 주인님의 충복인 저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인이 아내의 방으로 가보니까. 젊은 아내는 수심에 찬 모습으로 커다란 나무 궤짝 곁에 앉아 있었다.

“이 궤짝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좀 보여 주겠소?”

“하인이 의심해서 인가요. 아님, 저를 못 믿어서 인가요?”

“이런 저런 말을 듣는 것보다. 아예 열어 보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럴 수가 없어요?”

“잠겨 있소?”

“그래요. 잠겨 있어요?”

“열쇠는 어디 있소?”

그녀가 앞을 가로막았다.

“하인을 내보내세요. 그러면 열쇠를 드리겠어요?”



주인이 하인을 내보내자 젊은 아내는 열쇠를 건네주고 몸을 움츠리며 몹시 불안해했다. 주인은 한동안 깊이 생각했다. 그러더니 일꾼 네 사람을 불렀다. 주인은 그들을 시켜 궤짝을 정원 한구석으로 가져가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문어 버렸다.

불자의 선정을 막는 의심으로는 자신의 능력이 열등하다고 의심하고, 스승의 말과 행동이 자기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며, 법의 가르침이 진리에 부합하는가를 의심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의심은 마음에 망설임과 꺼려하는 반응을 일으켜 마음공부를 방해한다. 내 마음이 작동하는 한, 나는 의심의 상자를 무수히 만들어 낼 것이다. 그만 고장을 내어 작동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



'정유정 북 콘서트'에 가다

여순애
자식사교도



지난 여름 남포동 롯데백화점에서 '정유정 작가 북 콘서트'가 열렸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녀를 유명세에 오르게 한 '7년의 밤'의 저자이다. 북 콘서트는 3년 만에 걸쳐 만들어낸 신작 '진이, 지니'를 낸 기념으로 열렸다.

정유정 작가는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다. 자신도 "이 과를 전공했는데 문과의 길을 걸었다."며 특별한 자신의 인생을 말했다. 저서로는 장편소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제1회 세계청소년 문학상을 <내 심장을 쏴라>로 제 5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7년의 밤>, <28>, <종의 기원>은 주요 언론과 서점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고 영미권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핀란드, 중국, 일본, 브라질 등 해외 2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되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북 콘서트는 더운 여름 아담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작되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버스킹을 하는 젊은 두 남녀가 나와 노래 3곡을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북 콘서트 참석이 서투른 난 마냥 재미나 기만 했다. 기대하던 정유정 작가는 큰 키에 커트머리를 한 미모의 여인이었다.



작가라고 해서 특이한 예술적 모습을 갖추고 나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는 멋진 친구와 같았다. 요즘은 작가라고해서 자신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다. 작가로써 소질을 보인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아무런 재주가 없던 그녀는 초등학교 때 할머니를 따라간 서비스단의 만담을 보고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다.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듣는 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질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책을 읽고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작가로써의 길로 들어서는 게 늦었지만 그녀는 지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동안 규칙적으로 완성할 때 까지 1년, 2년이 걸려서 쓴다고 하니 그녀의 유명세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싶다. 글을 다 쓰고 나면 글 속의 자신에서 현실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글 쓰는 동안에는 오로지 글 속의 주인공이 된다하니 얼마나 몰입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함께한 정유정 작가! 자신의 일에 얼마나 충실히 한가를 보여주고 좋은 모습으로 많은 엔돌핀을 선물해 주었다. 신작을 사서 싸인도 받았다. 여름날 더위를 잊고 책에 몰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회망

김정희
관음사 교도



오늘 보살님들께 안부문자 보내면서 갑자기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의 소중한 인연들을 마음대로 못 만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답답하고 슬프다.

TV프로그램에 나오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반강제적으로 얹매여 있으니 우리 보살님들도 집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모든 스승님들께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실 것 같다.

나는 특히 병원에 계시는 엄마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냥 스쳐 지나간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던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요즘 세상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견디고 견뎌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산너머 물건너 살아온 나날들이 헛되지 않게 부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모두가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용맹정진합시다. ।

봄철 제철요리

김조은
수인사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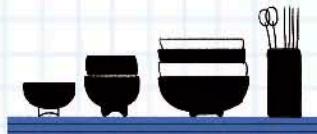


오늘은 아주 향긋하고 비타민 가득한 봄철의 제철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제철음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재료들을 사시사철 구할 수 있지만 철이 아닌 때의 농산물은 제철일 때보다 신선도가 떨어지고 맛이 덜하고 가격 또한 비쌉니다. 과일은 열매가 무르익고 해산물은 한창 살이 올라야 맛이 좋은 시기인 제철, 이달의 제철 음식과 함께 입맛을 돋우어 볼까요?

영양소가 풍부한 봄철 제철음식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신경안정에 도움이 되는 산체의 제왕인 '두릅', 항암효과와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몸에 좋은 산야초 '씀바귀', 열량과 콜레스테롤이 적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미더덕', 타우린 성분으로 체내피로도 풀어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지친 심신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바다의 기운 '소라'도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들 또한 풍부하게 나오는 아주 식재료 풍년의 달입니다. 제철재료들을 이용하여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1) 소라와 달래의 만남

3월부터 시작되는 제철 소라는 천복만큼이나 영양도 풍부하고 탱글탱글한 식감도 못지 않습니다. 이 맛있는 소라를 삶는 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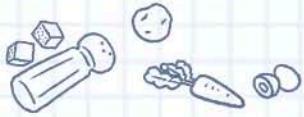


① 소라 삶는 방법

- 소라를 겉껍질과 안쪽을 솔로 박박 문질러 닦습니다.
- 이렇게 닦아놓으면 삶은 후에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 깊은 솥에 소라의 2/3정도의 물을 붓고 굵은 소금을 넣고 뚜껑을 덮고 끓여 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주나 청주를 조금 붓고 큰 소라일 경우에는 10~1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소라가 식기 전에 속살을 빼야 잘 빠집니다. 소라를 드실 때 주의 하실 점이 있는데 독성이 있는 침샘부분을 제거해 주셔야합니다.

소라의 살을 빼내서 칼로 가르면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곳의 노란 부위가 침샘 또는 타액선이라고 하는데 제거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내장 쪽으로 가는 쪽에 까만색이 쓰개 부분인데 짙은맛을 내며 배탈을 나게 해서 이 부분도 제거해서 드심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라를 삶아 놓은 후 달래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10 달래장 재료 달래 1단, 진간장 7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마늘 1/2큰술, 참기름 1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파 1큰술, 깨소금

위의 재료들을 모두 넣어 달래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달래향 가득한 맛있는 달래장을 먹기 좋게 썬 소라와 함께 얹어 드시면 소라의 쫄깃한 식감과 함께 고소하고 달콤한 맛과 봄향 가득한 달래향과 어우러져 맛있는 소라와 달래의 만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2) 쌈바귀 유부전골

쌈바귀는 허파의 열기를 식혀주고 소화불량, 폐렴, 간염등 몸에 좋습니다. 사실 챙싸름한 맛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아이들이 먹기에는 조금 힘든 음식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쌈바귀의 쓴맛을 제거해주면 드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10 쌈바귀 쓴맛 제거하는 방법

소금물에 한번 데쳐서 찬물에 30분정도 우려내어 쓴맛을 제거해서 요리해주시면 드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10 유부 속 준비하기

유부는 튀긴 두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식혀줍니다. 다진 소고기, 불린 당면, 다진 대파, 쌈바귀를 팬에 넣고 볶다가 진간장과 올리고당을 넣고 양념하세요. 재료에 따라 간장과 올리고당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내용물이 소고기가 200g에 진간장 2스푼, 올리고당 1작은 스푼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속재료의 비율

은 좋아하시는 재료를 더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볶아진 재료들에 참기름을 둘러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속재료들을 식혀 유부주머니에 넣으시고 살짝 데친 미나리로 유부주머니를 묶어주세요.

10 유부전골 육수내기

물 500ml에 멸치 5마리, 밴댕이 2마리, 다시마 4*4 1장을 준비한다.

- 다시멸치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 쓴맛을 제거하고 마른판에 수분기를 없앨 정도로 볶아줍니다.
- 물 500ml에 다시멸치와 밴댕이, 다시마를 넣고 찬물에서부터 5분정도 센불에서 끓인후 증불로 줄여 5분간 끓여 줍니다.
- 거품을 중간중간 제거해주고 불을 끄고 다시재료들을 건져냅니다.

10 유부전골 만들기

멸치육수를 종이컵 한 컵이면 유부 1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멸치육수에 유부주머니를 넣고 집에 있는 해산물을 넣으셔도 됩니다. 새우를 넣으면 국물이 훨씬 시원해집니다. 당근 1/3개와 무1/4쪽을 손가락 너비정도로 썰어서 전골냄비에 먼저 깔아주시구요. 그 위에 유부주머니를 얹어서 멸치육수를 부어 팔팔팔끓여줍니다.

우리 몸은 계절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며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력과 에너지를 책임질 제철음식으로 건강을 챙겨봅시다. ♡



무드라 mudrā

김제동
법장원 연구원



불보살과 명왕, 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상에는 특유의 손모양과 들고 있는 지물이 있어서 그 존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수행자는 불상의 손모양을 통해서 그 존이 나타내려고 하는 바와 계합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드라를 통해서 삼마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세계에 속한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고리가 무드라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무드라가 표현하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존상이 의미하는 바와 계합하는 것이고, 존상의 무드라를 통하여 상징하는 것과 일치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무드라는 이미 초기불교에서부터 등장하며, 불보살의 본서를 나타내고자 하거나, 불상을 형상화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이 되며, 시대가 지남에 따라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밀교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하나로 정립된다. 밀교의 무드라의 특색은 이러한 초기불교 이래의 무드라의 성격을 포괄하면서 나아가 그것을 밀교의 데 속에 체계적으로 구성시킨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밀교에서는 결인의 두 손과 열 손가락에 특수한 의의와 명칭이 있다. 양손은 2우* 또는 2의*이라 하고, 열 손가락은 10도*, 10륜*, 10연*, 10법계*, 10진여*眞如, 10봉*이라고도 한다. 손톱은 갑*, 손바닥 안은 만월*滿月 호구*虎口라 한다.

왼손은 정*淨 지*智 복*福 이*慈 태장계*胎藏界 중생계*衆生界 월*月을 나타내며, 오른 손은 원손이 나타내는 각각의 상징에 대해 혜*慧 관*觀 지*智 금강계*金剛界 불계*佛界 일*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좌권*左權을 선권*善權이라 한다.

석가여래의 양쪽 협사는 왼쪽이 선정*善定을 나타내는 보현보살이고 오른쪽이 지혜를 표시하는 문수보살이다. 그래서 지혜를 오른쪽에 배당하고 선정을 왼쪽에 배당한다. 따라서 좌권은 선권이라 칭하며 우권은 지권*智權이라 칭한다.

또한 섭무애경에 의하면 왼손의 다섯 손가락은 태장만다라의 5지*五智를 표시하고 오른손의 다섯 손가락은 금강계의 5지를 표시하여 열손 가락은 10바라밀, 혹은 10법계 10진여를 표시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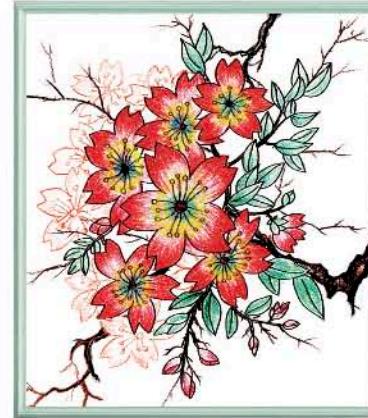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손가락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여 밀교 특유의 무드라로서 우주의 비밀한 뜻과 인생의 깊은 의미를 나타냄과 함께 이 비밀한 뜻을 전달함에 의해서 정*淨과 혜*慧를 함께 행하는 밀교의 독특한 수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 독자 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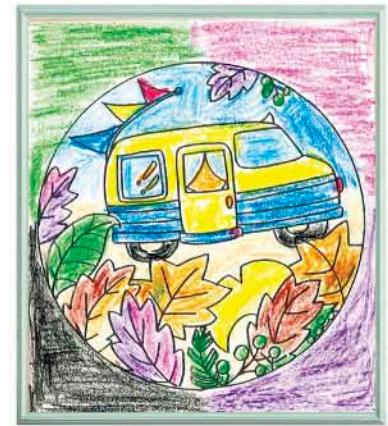
▲ 서울 이석호



▲ 서울 김은지



▲ 서울 이유정



▲ 정각사 한칠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 키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종 종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종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범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자	강민우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민준
김봉래	김성민	김승자	김양숙
김윤서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연
손경옥	손재순	안종호	안한수
양진윤	오승현	오체원	오현준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일심정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정재영	정화연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경림	한미영	한명희	허지웅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네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9(2020)년 5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처 불교총지종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위기 속에 지역 축제는 물론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렸다.

불교계 역시 4월 30일에 열리기로 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한 달 늦춰 5월 30일로 연기하였다.

'코로나 19' 여파로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미뤄졌지만, 코로나 극복 열원을 담은 희망의 등불은 광화문광장에 밝혀진다.

이번 광화문에 켜지는 봉축등은 높이 18m로 '황룡사 9층탑'을 본떠 만들었다. 황룡사 9층 탑은 경주시 황룡사에 있던 목탑으로, 고려시대 풍물 침입 때 소실돼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다.

황룡사는 국가적 행사나 국판이 있을 때 왕이 직접 참석해 예불한 장소라는 기록이 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당시 선덕여왕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수선한 국내외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원력으로 세운 탑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번 점등식에서 국난 극복을 염원해 본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서는
선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

- 환당 대종사 범어록 -